

저명한 범죄학전문가 최을교수는 요즘 연극가의 화제가 된 미스터리극 '죽음의 가면극'의 두번째 막이 오르기 직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바로 옆좌석에는 오랜 친구인 수도경찰청 강력부의 김무룡총경이 앉아 있다.

김총경은 며칠전 이 연극을 보았으나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번에는 친구인 최을교수와 함께 다시 보기로 한 것이다. 최교수는 본시 꾸며낸 미스터리 따위는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금 본 제1막은 그의 흥미를 크게 돋우었다. 주연여배우 장금자씨가 옥주라는 이름으로 출연하는 제1막에서는 까만 스웨터와 까만 타이즈 그리고 스키 마스크를 착용한 악한이 설세없이 옥주를 협박하고 있었다.

이 악한은 옥주가 무대에 혼자 있을 때만 출현했다. 이 사나이는 설세없이 옥주에게 살금살금 접근하지만 다른 배우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문이나 창을 통해 밖으로 사라지곤 했다. 관객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옥주가 그녀의 뒤쪽에 불쑥 나타나는 악한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제2막이 시작되었다. 옥주는 그녀의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두건을 쓴

악한은 다시 그녀의 거실로 몰래 들어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다. 악한은 옥주의 뒤로 다가와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최을교수는 낮을 잃고 이 장면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사실적인 살인 장면은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이때 별안간 앞쪽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함께 푸는 미스터리<9>

## 제2막 제1장: 살인사건

악한은 옥주의 시체를 벽난로 근처의 큰 상자로 끌고가서 흐늘흐늘한 그녀의 몸을 상자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이윽고 거실의 문이 열리고 애란이라는 이름의 배우가 옥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에 들어서자 살인자는 다른 통로로 재빨리 빠져 나갔다.

애란은 방을 훑어보면서 상자밖에 내드러운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상자쪽으로 걸어가서 뚜껑을 열고 내려다 보다가 금방 뒤로 물러서면서 울부짖었다.

“그녀가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빨리 손을 써야 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어!” 김총경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최교수가 물었다. “애란이가 상자를 열었을 때 옥주의 시체가 벌떡 일어 나게 되어 있었네. 처음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나도 쇼크를 받았지.”

울부짖기를 멈춘 애란은 무대 뒤로 달려갔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것이

연극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는 제작진들이 당황하여 찢찢매고 있었다. 무대감독 조수인 배영씨는 재빨리 커튼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객석의 조명을 켰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상자주변에 모여들어 장금자씨가 진짜 죽었고 그녀의 목은 교살

범의 손아귀로 멍들어 변색된 것을 목격했다. 배영씨는 무대담당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내려진 커튼 앞으로 나와 관중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는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최교수와 김총경은 무대 뒤로 갔다. 김총경은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배영씨에게 모든 출연자와 제작진을 집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서필수씨와 구두철씨를 제외하고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라고 배영씨

는 말했다. 서필수씨는 극중에서 살인  
 자역할을 한 배우였고 구두철씨는 '죽  
 음의 가면극'을 쓴 극작가였다. 구두  
 철씨는 이밖에도 6~7편의 베스트셀러  
 가 된 미스터리소설과 여러 편의 매우  
 성공적인 텔레비전과 영화 각본을 썼  
 다. 바로 이때 구두철씨가 황급하게  
 무대에 나타나면서 말했다. "서필수씨  
 가 자기 의상실에 갇혀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구두철씨는 최교수, 김충경 그리고  
 배영씨를 서필수의 방으로 인도했다.  
 배영씨는 비상용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에서 서필수씨가 연극에서 나오는  
 살인자의 까만 옷과 스키 마스크를 쓰  
 고 있었다.

"제2막이 시작되기 직전 누군가가  
 내머리를 내려치고 이곳에 가뒀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서필수씨는 물  
 었다. "장금자씨가 살해되었소." 구두  
 철씨가 말했다.

서필수씨는 그만 의자에 푹 주저앉  
 더니 그의 입에서는 "어떻게?"라는 외  
 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살인 장면을 하는 동안 무대에서 피  
 살되었소. 우리 당신의 의상을 입은  
 누군가가 무대를 떠날 때까지 그녀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소."라  
 고 구두철씨가 말했다.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요!" 서필수  
 씨는 이렇게 외치면서 의자에서 튀어  
 나와 구두철씨쪽으로 향했다. 배영씨  
 가 그를 말렸다.

최교수는 김충경과 조용히 귀엣말을  
 나누다가 출연자들과 제작진들쪽으로  
 돌아섰다. "여러분 잠깐 실례하겠습니

다. 배영씨와 몇 마디 할 이야기가 있  
 습니다."

세사람은 배영씨의 사무실로 갔다.  
 최교수가 입을 열었다. "배영씨, 장금  
 자씨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인  
 가 알 수 있을까요? 또 서필수씨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쟁이 있기는 했  
 으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살인자  
 라고 가려낼 수는 없  
 습니다. 서필수씨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  
 각해야 할지를 모르  
 겠습니다."

"그럼, 어떤 언쟁  
 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어  
 요?" 최교수가 물었  
 다. "좋습니다. 이  
 연극의 감독인 안달  
 씨라는 사람이 있습  
 니다. 이마가 훌쩍

벗겨진 사람인데 아마 보셨을지도 모  
 립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몹시 급한  
 사람인데 연습중에도 죽은 장금자씨와  
 여러 번 다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모르시겠지만 장금자씨는  
 구두철씨와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런  
 데 이들은 이혼절차를 밟고 있었지요.  
 장금자씨는 서필수씨와 결혼할 계획이  
 었고 구두철씨는 영화배우와 약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혼을 보류하고 있  
 었던 것은 구두철씨의 재산의 반을 가  
 져야겠다고 장금자씨가 주장하기 때문  
 이었지요. 그런데 아실런지 모르겠지

만 구두철씨는 돈이 많으면서 노랑이  
 입니다." "그렇다면 장금자씨와 서필  
 수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교수  
 가 다시 물었다.

"서씨는 장금자씨와의 결혼에서 손  
 을 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  
 니다." 배영씨가 말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을 이었다.

"장금자씨의 대역으로 김애리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장금자씨의 대역을  
 맡기 전에 서필수씨의 애인이었습니  
 다. 김애리씨는 이 연극이 지방 순회  
 공연으로 나가면 주연배우가 되고 싶  
 었지만 장금자씨가 지방공연에서도 주  
 연자리를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매  
 우 실망했지요. 또 장금자씨를 괴롭히  
 는 팬으로서 오영광이라는 이름의 이  
 상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금자씨를 따라 다니고 전화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어도 오늘



우주선 타일 검사에 로봇 활용

만약 우주왕복선의 알루미늄 표면이 열저항의 타일로 덮이지 않았다면 우주왕복선은 지구대기로 돌입하면서 연소되어 버릴 것이다. 왕복선의 아래쪽에 붙여진 1만7천개의 실리카로 만들어진 타일들은 발사전에 검사되고 방수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이 타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과학자들은 타일을 검사하고 방수처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으로 작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

로봇은 작업대상 타일들을 같은 크기로 몇 개의 작업장으로 분류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각 타일의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그런 다음 타일의 상태를 이전에 검사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결점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찾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로봇이 모든 작업을 8시간 단위의 작업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이 새로운 타일검사기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밤에도 관객속에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한번도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극장이 일찍 파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장금자씨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최교수와 김충경과 배영씨가 무대로 되돌아 왔을 때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는 사람은 오영광씨였다. “이 사람을 무대뒤에 숨어있는 것을 체포했습니다. 수위를 빼돌리고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경찰관 한사람이 말했다. 그 순간 구두철씨가 최교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찾아냈습니다.”고 속삭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배영씨와 이야기하는 동안 무대뒤를 잠깐 훑어 보았지요. 그랬더니 서필수씨의 의상실밖 바닥에서 이런 것을 찾았지 뭐니까!” 구두철씨는 최교수에게 열쇠 한개를 건네면서 “이건 서필수씨 방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를 가둬놓고 문을 잠근 것 같군요.”최교수가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받으면서 구두철씨는 다시 다음과 같이 이어 나갔다.

“그러나 여기 있는 문짝들은 열쇠를 안팎에서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필수씨의 방 바깥쪽의 자물쇠속에서 열쇠를 발견했다면 의상실내부에 스스로를 가둬 두게 다른 열쇠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필수씨는 두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스스로 가둬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알리바이까지 제공한 셈이 되었군요. 참 재미있군요. 구두철씨! “좋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교수는 말했다. “저로서는 참으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서필수씨는 제 친구거든요.” 구두철씨는 말했다.

“네, 이해할만 합니다.”최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김충경을 돌아보면서 “뭐 새로운 것 있는가?”고 물었다.

“우리 사람 하나가 이게 무대출구 근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찾아냈어. “김충경은 까만 의상과 스키 마스크를 번쩍 쳐들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서필수씨에게 이걸 입혀 보려고 했는데 그에게는 사이즈가 너무 컸어. 더 큰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애.”

최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에서 웅성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이들 속에는 살인자가 있었을까? 구두철씨와 오영광씨는 모두 서필수씨와 크기가 엇비슷했다. 김애리씨는 이들보다도 훨씬 적었다. 그러나 안달씨는 마침 의상과 비슷한 크기였다.

최교수는 김충경을 보면서 “이 친구야. 누가 주연여배우를 살해했는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금자씨를 목졸라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春堂인〉

〈해답은 98쪽에〉